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담임목사 연임 확정, 92.9% 찬성표 얻어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목사 ©교회 측 제공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교회 측 제공

동양선교교회는 2024년 4월 7일(주일) 임시공동의회를 열고 김지훈 담임목사 연임(재선임)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연임투표에서 김지훈 담임목사는 92.9% 찬성표를 얻어, 연임을 확정했다.

김지훈 담임목사는 “동양선교교회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성도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양선교교회에 맡겨주신 선교, 교육, 봉사 사명을 더욱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주일예배에서 “생각이 기도보다 앞설 때”(사무엘상 27:1-12)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 목사는 다윗의 광야 생활이 만 8년째 접어든 무렵,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의 소견을 따라 블레셋의 땅, 가드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머물게 되면서 어떻게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며, “아무리 작은 판단이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문은 다윗이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하는 장면이다. 다윗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늘, 그리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다. 다윗은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였다. 이 다윗의 모습이 잔인한 것은 이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부족 간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면 다윗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항복하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도, 나발도 죽이지 않았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진 것일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을 만큼

잔혹해진 것일까?” “오랜 도망자 생활이 8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 보다 생각이 많아졌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라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사울이 이스라엘은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 하라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삼상 27:1)’ 이렇게 생각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도 해 보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된다.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다윗은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렸다.” “다윗이 시글락에서는 주변을 약탈하며 살게 된다. 도둑대를 약탈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꽤 많은 것을 얻었다. 광야에 살 때와 다르게 풍족해졌다. 가진 것이 풍족해지니 블레셋 땅에 더 머물러야 겠다 생각하고,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블레셋 땅에 온 이후,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블레셋 왕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블레셋 사람의 가치에 점자 물들게 되었다.”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때, 절대로 그냥 주지 않는다. 반드시 후에 청구서가 날아온다. 처음에는 탐욕하지만 결국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 이곳에 와서 다윗의 사정이 훨씬 나아졌다. 하지만 주님의 영이 중심이 되지 않는 이곳에서 다윗의 영이 죽어간다. 신학자들이 그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준다. 세상이 주는 만족 때문에 단 한편의 시련도 기록하지 않았다. 시글락에서는 세상

이 주는 만족감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다윗의 입술에는 찬양의 영이 담기고, 기도의 샘이 막히게 된다. 영성이 망가지고 다윗 안에서도 사울과 똑같은 악한 모습이 나온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니 살인도, 약탈도 가능하게 된다.”

“아무리 작은 판단이라도, 이 결정을 두고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선택으로 내 예배와 기도가 끊기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벗어나는 선택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 여지없이 무너진다.”

김지훈 목사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문화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장신대에서 목회학을 공부하고, 덴버의 아일리프 신학 대학(Illiff School of Theology) 를 거쳐, 현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The Clinebell Institute 카운셀러, 노스 세인트 앤소니 병원 채플린, 킹스웨이처치(Kingsway Church) 설교 목사, 영세교회 교육전도사, 농은뜻정의교회 전임 전도사, 부목사를 거쳤다. 2016년 9월부터 동양선교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겨온 그는 2017년 7월 동양선교교회 제 6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1970년 고 임동선 목사가 개척한 이 교회는 2대 이병희 목사, 3대 박광철 목사, 4대 강준민 목사, 5대 박형은 목사를 거치며 LA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뉴노멀이 아니라 오리지널 노멀로... 주께로 돌아가자”

LA 베이직교회 창립 예배 및 담임목사 취임 예배 열려

LA 베이직교회(담임 이선기 목사) 창립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7일 오후 4시에 엘에이에서 열렸다.

LA 베이직 교회(LA Basics Global Methodist Church)는 2023년 12월 3일(첫 주일)에 윌셔글로벌감리교회(Wilshire Global Methodist Church)라는 이름으로 UC Academy 학원 야외 공간에서 약 5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시작되었다.

LA연합감리교회와 윌셔연합감리교회 소속이었던 한인 성도들이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교단의 반성 경적 정책, 동성애 합법화 흐름에 반대하여 이선기 목사를 초대 담임목사로 창립하여 이 교회를 개척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 R828”(로마서 8:28-31)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신병욱 목사(미라클 LA)는 “8장 28절과 31절에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되어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병기라고 말하고 있다”라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어떤 사탄도 꺾일 수 없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병기를 소유하고 있는 교회라 믿는다. 합력해서 첫 예배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이 크다”라고 했다.

이어 “팬데믹 시절에 자주 눈에 띄었던 단어는 뉴노멀이었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오리지널 노멀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많은 기후 제약,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데에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를 주시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멀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에



LA 베이직교회 창립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7일 오후 4시에 엘에이에서 열렸다. ©교회 측 제공

이 베이직교회를 부르신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의 베이직이 이렇게 힘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Keith Boyette(GMC 교단 대표), 고한승 목사(한미연회 임시의장), Charles Johnson(CABCLA)의 축사도 진행됐다. 주소: 1304 S. Cochran Ave. LA, CA 90019 www.labasics.org, 213-255-0521 토마스 맹 기자

시애틀 한인 청년 연합 찬양 집회, 부흥 갈망하며 뜨겁게 찬양



시애틀형제교회에서 열린 심형진 목사 초청 시애틀 한인 청년 연합 집회 현장의 모습. ©시애틀형제교회



심형진 목사가 찬양하고 있다. ©시애틀형제교회

심형진 목사 초청 찬양 집회 시애틀 형제교회서 열려

시애틀 한인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흥을 갈망하며 뜨겁게 찬양했다.

지난 7일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 바셀캠퍼스에서 열린 심형진 목사 초청 찬양 집회에 모인 차세대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따라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다.

시애틀 지역 한인교회 청년들이 연합으로 모여 열린 이날 찬양 집회에서 청년

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된 기쁨을 누렸다. 시애틀 지역의 청년 부흥을 사모하며 이날 집회에 참석한 부모 세대들도 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신의 대표곡 ‘은혜로다’도 집회의 문을 연 심형진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로하심을 감미로운 음성으로 노래했고, 마음을 문을 활짝 연 청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했다.

이날 “I hear you”(시편 116:1)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남현수 목사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우리의 아픔과 기쁨, 소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했다.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함께 찬양 집회를 다시 가질 수 있어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이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남보라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은행계좌입금 심의명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공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보험보안) 노란우산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가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해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까지 납부공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손님이 먼저 알아보고 선택해주신 하나은행 연금 더드림 라운지

여의도 | 을지로 | 삼성동 | 부산 | 대구 | 광주

2023
퇴직연금 자산증가
전금융권 1위

2023년, 금감원
통합연금포탈 공시 기준

나만을 위한 특별한 연금플랜을 만나보세요



연금 더드림 라운지
대상 손님 | 1억원 이상 IRP/DC 자산 보유한 개인손님
예약 방법 | 하나원큐앱 - 메뉴 - 퇴직연금 - 연금닥터 진단 - VIP상담

연금 더드림 라운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 연금 VIP 종합 컨설팅
- 연금 자산관리
- 연금 및 은퇴 설계
- 전문가 상담 연계 서비스



※ 하나연금닥터는 하나금융그룹 퇴직연금 전문 브랜드입니다. ※ 이 금융상품은 사업자가 적립금 운용 상품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만, 상품결정권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도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보도법에 따라 예금보도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도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한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실제배당금 상환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연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DC/IRP]계좌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보도법에 따라 예금보도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중립적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은 경우 최대 원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의 발생여부 등에 따라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https://www.hanabank.com>), 모바일 앱(아니1Q)을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고객센터 1599-208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01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중립감사인 심의필 제2024-광고-0106호(2024.02.06~2025.01.31) / CC브랜즈240207-0064

의협 비대위 “정부와 물밑 협상설 사실무근”

“새 집행부에 안정적 인수인계 준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와의 물밑 협상설을 전면 부인했다. 비대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료계 일부에서 비대위가 5월 전에 정부와 물밑 협상을 통해 사태를 종속 마무리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나왔다”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예정된 활동 기간인 이달 30일까지 김택우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의협 집행부에 안정적인 인수인계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놴다.

비대위 측은 “차기 의협 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활동하는 한시 조직”이라며 “이제는 새 집행부가 업무를 잘 인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위는 “종속 협상이나 밀실 협상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전 회원 투표로 행동 시작과 끝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그 약속은 해체 때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인수위와 당선인이 갑작스레 비대위를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당선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현재 단일대오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방거짓 선동에 단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뉴스시스

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계 분열 사태는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나래 기자

자유통일당 “중복 세력 척결하고, 차별금지법 차단할 것”

선대위 관계자들과 비례대표 후보자들,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

자유통일당(대표 장경동 목사)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관계자들과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선대위 관계자들과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대표해 이 당의 비례대표 후보 2인인 석동현 후보자는 “자유통일당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정당으로 진출한다면 국민의힘과 협력하되 보수로서 확실한 색깔을 낼 것”이라며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면 탄핵과 개헌 시도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흔들 것이다. 우리 자유통일당은 좌파적 공세를 막아내는 선봉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애국 시민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향후 성공을 지켜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자유통일당이 더한 책임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당은 선명한 보수로서 애국시민들에게 약속한 중북주사파 세력들을 척결하고 반(反) 주사파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동성애 등 반윤리적 행태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을 차단하는 등 자유통일당의 정책을 지속 추구해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수완박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비정상적인 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여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를 저지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일”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한중일 3국 정상회의 4년 반 만에 개최 초읽기

한국-중국-일본 3국 정부가 다음달 26-27일경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최종 조율에 나섰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북한 정세와 경제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3국 외무장관들은 부산에서 만나 조만간 정상회의를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 청두의 세계성 국제회의장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 후 공동언론 발표를 하던 모습. ©뉴스시스

열조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순회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

국어 시기를 검토하며 5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회의가 성사되면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반 만에 개최되는 셈이다.

2008년 출범한 한중일 정상회의는 코로나19 확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관계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의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이나래 기자

피치 “중국 재정리스크 커져”

장기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9일(현지시간) 중국의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피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장기외화외채비율(DDR)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의 신용등급 자체는 A+로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전망 하향 조정은 중국의 공격적 금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피치는 설명했다.

피치는 중국이 부동산 중심 성장모델

에서 벗어나 안정적 성장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중국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성장을 떠받치려 할 것이며, 이는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피치는 중국 정부 적자가 GDP 대비 올해 7.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8%에 비해 1.3%p 증가한 수치이다.

피치는 “2024년 중국 정부 적자는

2020년 이후 최고치가 될 것”이라며 “2015-2019년 평균 3.1%에 비해 거의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치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5.2%에서 0.7%p 하락한 수치이다.

중국 재정부는 이번 피치의 전망 하향에 유감을 표했다. 중국 재정부는 “피치 평가체계가 중국 재정정책의 긍정적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사과값 역대 최대 인상... “유통구조 탓”

최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폭등한 사과 가격이 생산량 감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유통구조상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중이 높아 중간 유통상들이 가격을 주무는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사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88.2% 올랐다. 198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작황 부진으로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30.3% 감

소했지만, 가격 상승폭은 이를 웃돌았다.

이는 사과 유통구조상 오프라인 도매 시장 비중이 60.5%에 달해 중간 유통상들이 공급을 조절하며 가격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농가에서 1,500원에 사과를 출하해도 소비자 구매가는 5단계 유통과정을 거치며 4,000원까지 올랐다. 산지가격 대비 167%나 인상된 셈이다. 한 농민은 “착과량이 절반 가량

줄어 여전히 어렵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육성과 직거래 확대에 나섰다.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현재 0%에서 15%로 높이고, 오프라인은 60.5%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다. 유통비용도 62.6%에서 56%로 줄이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직거래 확대를 위해 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 영주시 사과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수급 상황을 점검하던 모습. ©농식품부

소비주 주체 조직화와 인센티브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나래 기자

주식 ‘빛투’ 6개월 만에 최고... 20조 육박

국내 투자자들이 빛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빛투’ 규모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20조 원에 육박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9조 4,772억 원으로 한 달 새 9,510억 원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달에도 19조 원대 신용거래용자 잔고를 유지 중이다. 8월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10조 4천억원, 코스닥시장에서 9조 323억 원을 기록했다. 신용잔고비율이 높은 종목은 대부분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이다. 텔레칩스, 에이텍, HLB바이오스텝, 등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이런 종목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증시 대기자금 성격인 투자자 예약금도 60조 원에 육박했고,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81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날 국내 증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는 총선 결과와 미국 물가지수를 확인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대응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물가지수가 예상을 상회하면 금리 인상과 주가 동반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나래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콜에어파스 에어로솔 의약품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인권운동가 100여 명, 美상원에 종교자유 기본권 지정 촉구

100명 이상의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종교 자유 옹호자와 단체들이 미국 의회에 종교적 자유를 기본 권리로 인정하는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크리스 쿤스 연방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발의한 초당적 상원 결의안 569호는 종교 자유를 미국 외교 정책에 통합하고, 전 세계의 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독교 비영리 법률 단체 '국제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International)'은 이 서한에 서명한 '국제종교자유원탁회의'(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oundtable) 산하 113개의 종교 자유 옹호자 및 단체 중 하나이다.

서한은 "결의안에 기술된 대로,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종교적 소수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대량 학살과 집단 만행부터 신앙과 신념으로 인해 투옥되고 추방된 개인들, 종교 모임과 관행에 대한 부당한 제한, 종교 장소 파괴에 이르기까지,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중대한 기본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불안정과 불안, 경제 발전의 쇠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의된 상원 결의안 569호는 종교의 자유를 핵심 인권이자, 미국 외교 정책의 초석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크리스 쿤스, 제임스 랭포드(공화·오호라호마),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톰 티러스

(공화·노스캐롤라이나)가 주도한 이 결의안은 위안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외교 및 제재 수단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옹호자들은 이 결의안이 "수많은 국가들의 종교적 자유 상황을 정확하고 충격적으로 묘사한다"고 전했다.

서한은 "이런 상황 때문에 결의안의 정책 권고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종교 자유를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장려하고, 모든 가능한 외교 및 제재 수단을 사용해 위안자에게 책임을 묻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전 세계적의 종교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자유수호연맹의 글로벌 종교 자유 법률 고문인 셀 벨스는 신앙 공동체에 대

한 광범위한 위안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 중요한 법안을 제안한 의회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필요한 변화를 촉진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특히 나이지리아, 인도, 파키스탄, 니카라과, 이란, 러시아 등의 종교 자유 침해를 언급하고 있다.

결의안은 나이지리아에서 "형법과 샤리아 법전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을 정부가 사용에 위안자에게 책임을 묻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전 세계적의 종교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폭력은 최근 몇 년 동안 나이지리아 기독교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작년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플라토 주에서 발생한 공격을 포함해 수천 명의 기독교인

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학살당했다.

지난 3월에는 이슬람 무장세력이 카두나 주의 한 학교를 공격하여 최소 287명의 학생을 납치했다. 이는 일주일 만에 나이지리아에서 두 번째로 발생한 대규모 납치 사건으로, 이 지역의 안보 위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의안은 또한 인도에서 국가, 주 및 지역 차원에서 시행되는 "종교적 차별 정책"을 비판했는데, 이는 "종교 개종, 종교 간 관계, 하잡 착용 및 소 도살"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률들은 이슬람교도, 기독교인, 시크교도, 달리트, 아다바시의 생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미 국무부가 인도와 나이지

리아를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용인하거나 가담하는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다.

니카라과 정부는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종교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올해 1월에 망명하기 전, 인권 활동을 이유로 26년 형을 선고받은 볼란도 알바레스 주교는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 사례를 보여준다.

결의안은 파키스탄에서 종교적 소수자들이 직면한 살인, 강제개종, 성폭력과 같은 위협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러시아에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관한 법률이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교도, 우크라이나 그리스-가톨릭 교회 신자 등 종교적 소수자들의 신앙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된다"고 경고했다.

유진 김 기자

줄리 터너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중국의 탈북민 강제복송 개선 안돼"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사진)는 9일(현지시간) 중국의 탈북민 강제복송 문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의 강제복송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큰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측은 탈북민들이 경제적 주자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고, 강제 송환시 고문이 이뤄진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고문방지협약 조항 적용에 대해서도 해석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터너 특사는 그럼에도 "중국과 유엔 회원국들에게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대남 강경노선은 북한 내부 상황 통제를 위한 절박한 시도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터너 특사는 "남한을 향한 수사(발언)의 변화는 러시아 밀착, 무기프로그램 등 능력에 따른 전략적 변화라기보다는 내부 정보 통제 시도"라고 해석했다.

이내래 기자

대형병원 경영난... 지방병원은 도산 위기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대란



지난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대학병원 안과 외래가 텅 비어 있다. ©뉴스시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주요 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들은 하루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길어진 휴진으로 인해 입원과 수술이 크게 줄어든 반면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은 그대로여서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들 병원은 전체 의사 중 40% 가까이 전공의인데, 저수가 체계 탓에 전공의의 저렴한 노동력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 이에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병원은 무급휴가, 희망퇴직 등 비상경영에 나섰다.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50곳을 조사

한 결과 병원당 평균 85억원의 의료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만성적 저수가 체계와 더불어 외형 확대 위주 경영 관행도 경영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으로 지적한다.

환자 급감으로 병원 주변 상권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지방 사립대병원의 도

산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저수가와 환자 이탈로 만성적자에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저수가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고, 수만 명의 실업자와 간접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내래 기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AGI 기술 패권 경쟁... 빠르면 내년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차세대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AGI는 특정 분야가 아닌 인간 수준의 일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으로, 궁극적인 AI 목표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기술 패권 경쟁에 가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AI와 AI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기업 펀드 1조 4천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에서 글로벌 3강(G3)으로 도약해 미래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AI 스타트업 오픈AI가 차세대 모델 GPT-4를 공개하며 AGI 기술력을 과



시했다. 오픈AI는 "우리 연구가 AGI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기 GPT-5 모델이 진정한 AGI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I 전문가들도 AGI의 등장 시점을 전망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1-2년 안에 인간보다 똑똑한 AGI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다른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앞선 것이다.

하지만 AGI 실현을 위해서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머스크 CEO는 "앞으로 AI 발전의 핵심은 전력 공급 여부"라고 지적했다. AGI 데이터센터는 일반 센터의 7배가량 많은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결국 AGI 시대 주도를 위해서는 AI 기술력은 물론 반도체, 슈퍼컴퓨터, 에너지 등 전반적인 인프라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내래 기자

'1심 징역 23년' 정명석, 강제추행 혐의 추가송치

경찰이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된 정씨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여신도 4명(독일인 1명·한국인 3명)을 상대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

이 총남 금산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명석이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추가 고소를 접수했다. 특히 독일 국적 여신도 A씨는 JMS 측으로부터 지난해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받다 탈퇴한 뒤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총 22명이며, 경찰은 송치한 사건을 제외한 피해

자 13명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역시 정명석과 관련한 사건을 1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노형구 기자



● 재생자원(합성수지류)을 에너지로!

국내 최초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2019년 | 연속식 열분해기술 개발 및 전 공정 자동화로 24시간 연속운전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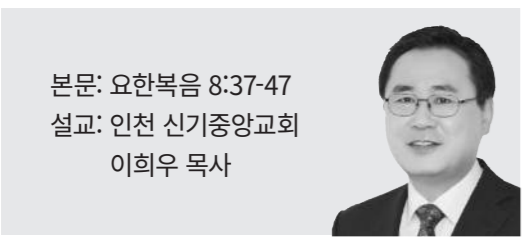
2023년 | 국내 최초 단일기기 1일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2024년 |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설비 설치검사 합격(한국산업기술시험원)

REVOTECH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가은로 311-43 | www.revogreenpia.kr

정부·기업·민간의 협력을 통한
자원재활용 및 친환경 공공열분해 선순환

요한복음(47) “아버가 누구?”



브라함의 자손이라 한 것에 대해 예수님이 의의를 제기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려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39절). 동질의 믿음이야 하고 동일한 행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꿈꾼 사람이 바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편협함을 버려야 한다.

◆마귀의 자식

예수님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은 케냐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다. 인간의 판단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꾀하는 존재, 마귀의 정체는 살인자, 거짓말쟁이다(44절). 그들이 마귀의 자식인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마귀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은 원래 그런 존재였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했던 아담, 에덴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며 자유를 만끽했다. 그러나 사단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짓말,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셨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기로 한 순간 자유가 박탈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관에서 떨어지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창 2:17).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첫 인간들을 살해한 존재다.

요한은 그 마귀를 '거짓의 아버지'라 했다. 마귀의 일의 특징은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하고, 거짓을 행한다는 것이다. '거짓'이라는 말이 반복된다. 코로나 펜데믹 시절 우리 사회는 한국교회들 거짓말하는 집단으로 몰렸다. 오미크론 감염 때 러시아 교포 목회자 부부 중 사모가 방역 택시를 탔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던 것, 교화에 어려움을 줄까봐 판단을 잘못해 거짓말한 것이 확인되면서 받은 오명이다.

여기서 진짜 마귀의 일하면서도 잘 주목하지 못하는 것을 씘고 넘어가고 싶다. 소위 이념의 죄라는 거다. 이념의 죄는 거짓으로 집단적 사기를 치는 것이다. 유대 랍비들이 무슨 거짓말을 했겠나? 그들은 대부분 마음씨 좋은 선량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고통케 한다. 다른 민족은 배제하고 차별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람에 의해서 벌어지는 엄청난 죄악을 보며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정리했다. "아이히만은 개인적인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상관을 죽여 그의 자리를 차지 하려고 살인을 범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했다. 그는 하여금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순전한 무사유(sheer thoughtlessness)였다."

그렇다.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새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린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 어느새 악마의 자녀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 마귀의 자식,"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놀라고 분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고 실상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다시 말해 죄의 노예가 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의 응답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10)였다. 공포와 수치심,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빛으로 비추어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그리고 그 진리는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구속해 준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사단의 손에서 구출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다"(47절).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하며 온갖 종교적 자만심에 도취되어 살던 유대인들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할 말씀이다.

분명히 알 것은 요한복음은 이미 첫 시작부터 인종이나 혈통의 가족이나 민족 개념이 없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이다"(1:12-13).

기독교는 그 출발부터 혈통의 신화를 켤다. 인간의 취미와 성향으로 모인 어떤 사교집단이나, 사람의 뜻이 집단적으로 집약된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한다.

이거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38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다"(47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나? 말씀이 잘 들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의 아버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했다. 대단한 자부심이다. 예수께서 "너희는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39절). 예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고 하셨다(37절). 유적으로서는 인정하신 셈,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하신다. 근원이 다르다는 말씀이다. 사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주장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위대함과 편협함이 모순적으로 얽혀 있다.

마치 고대 로마인들이 트로이의 후예라고 자랑하고, 그리스는 알렉산더의 후예, 몽골은 칭기스칸의 후예, 북구는 바이킹의 후예 또는 오딘 신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단군의 후예라고 말하듯 '아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제권 매입권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자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광고 신사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경기도, 베이비부머 퇴직자 중소·사회적경제기업에 조연자(컨설팅) 지원

2024년 베이비부머 기업 컨설팅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전문경력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퇴직자를 중소·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기업 조연자로 지원한다. 참여 대상자 베이비부머 전문 퇴직자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하면서 사업

자등록이 되지 않은 무직인 퇴직자 가운데 50세 이상 64세 이하이며, 조연(컨설팅) 활동을 희망하는 분야(수출, 첨단기술 및 경영)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참여기업의 경우 해외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면 된다. 올해는 40명의 베이비부머 전문 퇴직 인력을 65개 기업과 연결할 계획이며, 월 3회 이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연을 제공하게 된다. 조연자로 활동할 베이비부

머들에게는 활동 수당으로 월 60만원(도비 50만원, 기업부담 10만원)씩을 제공하며, 올해부터는 참여 조연자에게 전문 분야별 역량강화교육과 컨설턴트 자격증 과정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 전문 퇴직 인력 및 기업은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온라인(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진행된다. 남경야 경기도 베이비부머회회장은 "베이비부머들에게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기업들에게는 맞춤형 조연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자신이 보유한 경험과 경력을 전수하고 싶은 베이비부머와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베이비부머회와 베이비부머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우리 기자

전국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시작한다

4월 28일까지 신청...1인 5회 상담 지원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폭력, 이용자 상실, 직무 스트레스 및 소

진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전국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4월 28일까지이며, 1인 5회 상담을 지원한다. 신청 사유, 자가검사 결과를 종합해 참여자 선정을 진행하며, 선

정된 참여자는 전국 심리상담 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2024년 지원대상 사업 및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사업(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상담,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어린이

집, 아동복지시설 제외) ▲자살예방센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긴급돌봄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협약기관(취다인 또는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우리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성장산업 일자리 직업훈련 수행기관 공모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24일까지 경기도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산업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직업훈련교육 기관 및 시군 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민선 8기 중점 추진 사항인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과 시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헬스, 스마트 공장 등 기술혁신이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고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4차 산업 및 기술분야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분야는 신성장 산업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특화 과정'과 시군 신성장 분야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역 특화 과정'으로 이원화해 진행 예정이다. '훈련 특화 과정'은 도내 기관 중 160시간 이상 직업훈련 교육 진행이 가능한 경기도 시군, 시군 산하기관,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 또는 대학, 비영리단체, 직업훈

련기관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특화 과정'은 지역 내 산업수요를 반영한 신성장 일자리 취업 프로그램, 인턴지원금 등 취업지원에 대한 제안이 가능한 경기도 시군 및 시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재단은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향후 신성장사업 맞춤형 기술인력 배출과 산업전환 대비 안정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우리 기자

재단은 오는 16일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기관 및 시군 등을 대상으로 화상 채팅 플랫폼 줌(ZOOM)을 통해 '2024년 신성장산업 일자리 시군 공모사업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 확인 또는 설명회 참여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www.gjrf.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교육팀(031-270-9794)으로 전화문의 가능하다. 이우리 기자

어린이 손상사고 5~6월 최다 발생... 추락·낙상 가장 많아

통계청 '어린이 주요 손상 주요 통계' 발표

어린이 손상사고는 5-6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보다는 주말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추락·낙상에 따른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 손상 사고 2번 중 1번은 집에서 발생했다.

과 같은 일상생활(56.2%)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자전거 타기, 키즈카페 이용, 종이접기 등과 같은 여가 활동(26.7%), 학교 체육 시간, 등하교와 같은 교육(7.5%) 등이 많았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어린이 손상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어린이 손상환자 수는 14만2853명이었다. 이 중 4세가 18.8%로 가장 많았으며 5세(15.1%), 6세(12.3%)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64.4%)이 여성(35.6%)보다 많았다. 어린이 손상은 5-6월(21.3%)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어린이 손상사고 5번 중 1번은 이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어 7월(9.6%), 10월(9.2%)이 뒤따랐다. 평일보다는 주말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오후 시간대(13-18시:48.8%)에 많이 발생했다. 월별로 주로 발생하는 손상을 살펴보면 다른 월보다 4-7월, 9-10월에는 운수사고가 증가하고 5-9월에는 의수사고가 늘었다. 계절별 활동에 따라 손상의 특성이 달라지는 셈이다.

계절과 관계없이 어린이 손상사고는 추락·낙상 사고가 37.2%로 가장 많았으며 둔상(30.5%), 운수사고(9.1%), 관통상(7.9%) 순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손상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집이 4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14.6%), 학교·교육시설(10.6%), 놀이시설(7.3%) 순이었다. 집에서는 추락·낙상(34.5%)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총돌 또는 부딪힘에 의한 손상인 둔상(31.5%), 베임이나 찢김 등과 같은 관통상(10.7%)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 손상 사고는 휴식, 식사 등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한글문화 체험"...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

국립한글박물관, 외국인 대상 한글문화 체험 확대

국립한글박물관은 국내외로 증가하는 외국인 한글문화 체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한글문화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현장 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 학습자료 지원 방식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한글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은 12월까지 연중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립한글박물관은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자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습자료를 희망하는 재외 한글문화원 및 세종학당의 한국어와 '한국어 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의 교육 영상 2편과 교구제의 본격 배포를 시작한다. 한글 전통 서체의 변천 과정을 박물관 소장품을 통해 관찰하고 다양한 현대적 캘리그래피 기법을

활용,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내용으로 구성된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은 외국인들이 시각화된 이미지로서의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K-POP 등 한류의 지속적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는 '찾아가는 해외 한글문화 체험 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한류 강세 지역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선 연구교육과장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기점으로 국립한글박물관은 앞으로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한글문화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연중 운영하는 본 교육의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립한글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및 교구제 비용은 무료이며 교육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우리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최신간
NEW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계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도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비목회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심정으로 밟아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영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천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 1장 칼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행하는 성경여행서!




성경의 모든 장을 칼럼으로 저술했습니다. 성경 내용이 이해되고 계속 읽혀집니다. 정통 신학과 교리에 충실하고 적용이 탁월합니다. 경건을 갈망하는 크리스천이 기다려 온 책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에게 권요합니다. 말씀사역자의 평생 자료로 사용됩니다.

저자 | 김명제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예담교회
발행 | 하우출판사 (온오프라인 판매) (각권 484면, 권당 24,000원)


온라인 판매처 | 알라딘 yes24 영풍문고 KYOBO 교보문고




제1권 창세기-룻기



제2권 사무엘상-욥기



제3권 시편-이사야



제4권 이사야-마태복음



제5권 마가복음-요한계시록

NAVER 성경 1장 칼럼 | 성경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책을 펼쳐라 - 교보문고-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대표 김덕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 1: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흥회 특징]

- 불같은 찬양
- 생수같은 말씀
- 강력한 축사
- 우울증해결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향의 교회 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회장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교회복지연구원

1995~2024 /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교회복지학과 신입생 모집

2024년도 봄학기 신입생 모집

- 모집인원 : 00명
- 모집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 교육기간 : 2024년 5월부터 12주
서울(화요일), 대전(목요일)
- 교육장소 :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강의실(3층, 4층) 및 본원 강의실
* 서울은 단 1명이 등록해도 개강합니다.
- 등록비 :
- 50만원(점심식사 제공, 국내 교회복지 실습비 포함)
- 500만원(호주 & 미국으로 교회복지 실습 희망 시)
* 등록비는 개강식 이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며 분납도 됩니다.
- 등록방법 :
010-9643-6356 문자로 성명, 직분, 등록 지역을 보내시거나 www.cws95.net 신청에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기재하시고, 신청 내용에 신청(예/서울 신청)이라고 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상담문의 : 010-8011-9191(서울/김성덕 박사)
010-5115-9104(대전/정바울 박사)

[특전 및 진로]

- 2년 4학기 수료자는 본원 졸업증서 및 교회복지사 자격 취득(자격 발급비 없음)
- 목회자의 경우 1학기 수료 이후 소정의 자격시험 합격 시 교회복지사 자격 취득
- 목회자의 경우 국내외 교회 및 기독교 관련 복지기관 및 시설 교회복지 전문 목회자로 활동
- 평신도의 경우 국내외 교회복지 기관 및 시설, 기독교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설치 및 운영

www.cws95.net

소망의동산실로원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에게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교회건축포럼

교회건축&리모델링 세미나

주제 _ 바라보는 교회건축

2024.04.30(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B1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 앞 위치]

2024.05.07(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3F 포럼 2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 2호선, 동백역 1번출구 도보 15분]

- 참가비 : 30,000원(중식 및 기념품 증정)
- 우리은행 _ 1005-604-628807 [예금주 : 교회건축포럼]
- 문의 및 등록
- 전화등록 : 070-4355-3308
- 문자등록 : 010-3966-1463
- [문자등록시 (1.교회명 / 2.등록자명(직분) / 3.참석인원 / 4.핸드폰번호)]
- info@cbuild.co.kr



설계
(주)아진건축사사무소 최두길 대표

- 팬데믹 이후의 교회성장을 위한 설계
- 뉴노멀로서의 교회공간의 복합화
-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적 공간전략
- 신재생 녹색 환경의 교회



미디어
(주)크리스시스템 박정민 실장

- 더 나은 유튜브 예배송을 노하우
- 방송장비 운영인력의 솔루션
- 대형 led 구축과 운영의 실제
- 할스필링과 음향기술
- 연무대학교 700석 조명 리뉴얼 사례
- 기독교 뮤지컬투어 방송 사례(수영로교회/ 호산나교회)



인테리어
에스프리글로벌 최중민 대표

- 강력한 효율을 얻는 리모델링 사례 분석
- 예배를 돕는 공간 연출의 기준
-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 활용
- 건축음향과 인테리어의 중요성
- 라운지의 카페, 레스토랑 솔루션
- 3D 시각화를 통한 아이디어 적용 방법



CM
(주)라미건축사사무소 이범구 대표

- 교회건축 전문가가 사제를 통하여 전하는 교회건축의 올바른 방향
- 교회건축, 교회가 우선이다
- 교역자가 잘 일, 건축위원회가 잘 일
- 설계자의 업무, 사공사의 업무
-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매일묵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3)**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요”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변론하십시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도 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앞에

서 우리가 먼저 믿음을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선함과 의가 지푸라기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홍 같은 붉은 모든 죄가 양털같이 희어지는 은혜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 세상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답입니다. 이 이상 더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은 없습니다. 신정론으로 고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해 하나님의 정의

의 관해서 확실한 답은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 다. 우리에게 모든 살길을 열어두셨습니 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길 원하고 믿고 선택하고 가느냐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작은 고백과 의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여기에 나를 넣어보셨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그 아들의 죽음을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죽음을 감내하시라. 여기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악에 빠지고 죄덩어리인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의 십자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본 구리 뱀처럼 이 주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죄로 인해 고통받고 비참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쳐다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항상 우리를 향한 모든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할 작은 묵상입니다. 작은 응답과 작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크게 크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광교회 제공

날 새 나에게 하소서 **뇌성마비 장애인... 그가 말하는 행복,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삶, 이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도 한때는 장애인인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절망의 골은 깊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섰다. 장애는 더 이상 그에게 장애가 아닌 행복의 조건이다.

참 살아가 어렵다고들 한다. 가진 것이 없고, 할 일이 없어 어제도 오늘도 힘들었다고. 내일의 태양? 지쳐버린 마음은 좀처럼 희망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포기해야 할까. 아마 그 경계선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방황하는 이들이 많으리라. 만약 그렇다면, 잠시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자신이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뇌병변(뇌성마비) 1급 장애인 주재우(40, 강북제일교회) 씨다.

주 씨는 너무 일찍 세상의 빛을 봤다. 그의 어머니는 7달 만에 주 씨를 낳았지만, 집이 가난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지 못했다. 결국 아이는 보에 이상이 생겼고 그때부터 장애인이 됐다. 쌍둥이 동생은 태어난 지 10일 만에 죽었다.

어머니도 그가 7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다. 이후 아버지는 아들을 집에서만 키웠다. 아버지의 자존심은 장애인인 아들을 남에게 쉽게 보이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13살이 될 때까지 주 씨는 집 안에서만 컸다. 세상이 궁금했다. 마침 물레 문밖을 나서곤 했다. 그때부터 집 앞 몇 미터가 고작이지만, 그에겐 그것조차 신비함 그 자체였다.

“탈출을 듣키는 날엔 아버지로부터 매질을 당해야 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결국 아버지도 그런 그를 더 이상 나무라지 않았다.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할 만큼 세상은 그에게 생기를 더 하는 공간이었다.”

교회도 그런 곳 중 하나였다. 그를 반기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를 진동생처럼 아껴준 누나들도 많았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오려내지 못한 그에게 교회는 어머니의 품,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그런 사랑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다녔다. 신앙은 깊지 않았지만 나름, 교회 활동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주 씨는 집을 떠나 세상과 섞여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친구들로부터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보이지 않는 벽이 그와 친구들 사이에 놓인 것만 같았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밤낮을 고민했다. 비로소 한동안 잊고 지낸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장애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아픈 현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다.

피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사나운 파도는 그의 마음을 휘저어 상처를 내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곳으로 실어 날랐다. 마음에 둔 이성도 있어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장애인이라는 꼬리표는 사춘기였던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잔인하고 또 무거운 짐이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정신 지체장애인이었다면 더 좋을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주재우 씨.

았을 것일... 남들과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지만, 몸은 너무나 달랐던 그... 부모님이 싫었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아속했다.

죽고 싶었다. 죽으려고도 했다. 하지만 삶은 쉽게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우울증이 찾아왔다. 남몰래 우는 날들이 늘어갔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그곳으로 그는 자꾸만 몸을 움크렸다.

그때 빛이 보였다. 불현듯 ‘내가 이렇게 절망 속에서 삶을 허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는 이전과는 다른 눈물을 흘렸다. ‘그래,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니 다시 힘을 내보자!’

그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 노력했다.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주보를 만들고 문서들을 처리하는 것들이었다. 누군가에게 하찮은 일일 수 있지만 그에겐 소중한 삶의 한 부분이었다. 어느덧 컴퓨터를 쓰는 일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다. 노력의 보상이었을까. 교회 동생의 추천으로 한 여행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다. 그의 나이 30세가 넘어 얻게 된 첫 일자리였다. 이후 어느 광고회사에서도 일했고, 지금은 그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TV’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야 한다”고. 그도 한때는 ‘난 장애인 이 아니야, 내가 왜 장애인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그에게 우울증과 대인기피증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인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인 후 그의 삶도 변해갔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니,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고, 나도 행복하다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마침내 보이더군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삶에, 그리고 내 미래에”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roverbs 11:12 NIV
Whoever derides their neighbour has no sense, but the one who has understanding holds their tongue.

- whoever: 누구든 ~하는 자
- deride: 비웃다, 조롱하다
- have no sense: 철이 없다
- have understanding: 분별(分別)력이 있다
- hold one's tongue: (의견을 말하고 싶지만) 침묵을 지키다

(잠언 11장 12절)
누구든 자기 이웃을 비웃는 자는 철이 없는 것이지만, 분별력이 있는 자는 침묵을 지킨다.

카카오톡 | 영어성경 독해 연습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폭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침향 16%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SAT 녹용 10%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선착순 500명 한정!]
※ 증정품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향의 진한 정성, 광동 쌍화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롤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강지윤 칼럼 적극적 경청의 기술



강지윤 박사

대화는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대화를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또한 많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잘 유도할 수 없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장벽이 생기고,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에는 완전히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안타까운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랑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하죠. 밥 먹었어? 먹었어요, 정도.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엄마는 맨날 제 말을 안들어주고 이래라 저래라만 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말을 안들으면 화초리도 많이 때렸어요. 저는 맞으면서 마음 속에 분노를 키워갔어요. 중요심만 가득했죠. 아빠도 거의 말이 없었어요. 한 번씩 소리를 지른 거 외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살다보니까, 이젠 엄마 아빠랑 대화할 일이 없어서 버렸어요.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지만, 같은 집에서 서로 외면하고 지나쳐요..... 우리 집이 가끔 지옥 같다는 생

각이 들어요.” [선미(가명, 16세)]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이 지옥이 되어 버린 무수한 사례들을 보면 부모에 의해 자녀는 방치되어 있거나 직, 간접적인 학대로 인해 인격형성에 큰 방해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 자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훈련을 위한 중요한 몇 가지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적극적 경청”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에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가 한 말의 의미를 해석해서 다시 한 번 상대방에게 반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이 한 말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고통을 지르면 기분이 상하고 겁이 난다는 건가요?”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경청을 통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느낌을 주면 갈등을 해결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얘기를 들어 주는 것을 좋아하고 경청해 주는 사람에게 항상 반응을 나타냅니다. 경청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믿는 것이 나에게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담치료사의 경우 환자 혹은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주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환자는 말을 하고 상대방이 그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말을 들어 준다는 것은 이때 단순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진지하게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감정이나 정서 등과 같은 것을 함께 들어 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주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 경청이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즉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가진 준거의 내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 즉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입각하여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들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또 그들이 느끼는 감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즉 적극적 경청의 본질

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감정적으로로는 물론 지적으로도 완전하고 깊게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 중 불과 10%만이 우리가 말하는 내용에 의해 전달되고 다른 30%는 우리가 내는 소리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60%는 우리의 신체언어를 통해 전달된다고 합니다. 적극적 경청을 하는 경우 우리는 귀로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욱 중요한 눈과 가슴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말이 갖는 느낌과 의미를 경청합니다. 나아가 행동도 경청합니다. 이것은 오른쪽 뇌는 물론 왼쪽 뇌까지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감지하고, 직관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보통 다섯 가지 수준 중 어느 하나로 듣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말을 무시하는 경우로 상대방이 말을 하더라도 듣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응, 그래, 그렇지, 맞아” 등의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경우로 되었을 때에는 올바른 대화를 방해하게 됩니다. 셋째는 선택적 청취로 대화에서 단지 어떤 특정한 부분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회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하지만 두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경우나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린아이의 말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듣는 경우와 같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넷째는 신중한 경청으로 상대가 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에 총력을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다섯째 즉 가장 고차원의 경청 형태인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이 적극적인 경청은 부모의 대화기술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 경청을 연습하고 훈련한 부모와 자녀의 경우, 놀랍도록 빠르게 관계가 회복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미 길들여진 우리의 습관을 고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녀를 노엽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건강상식

살 찌수록 관절염 위험 높아진다

살이 찌면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관절은 우리가 뛰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사이에도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되면 그만큼의 몸무게를 견뎌야 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면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 몸이 더욱 비만해지며 이는 또 관절염을 키우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

비만이 관절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조사를 통해서도 발표된 바 있다. 관절염 환자의 약 60% 정도가 비만이며, 필자의 한의원을 찾는 관절염 환자 중에도 몸이 비만한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체는 비대해지고 하체는 약해져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비만은 관절을 상하게

하여 관절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당뇨병이나 동맥경화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평소 체중을 관리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무릎 관절이 퇴행되기 시작하는 40대부터는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라도 체중 관리가 필수다. 단, 이미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를 주는 과도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관절에 무리가 없는 걷기나 수영 등이 효과적이다.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찬바람과 습한 기운, 너무 뜨거운 열기

를 피해야 한다. 동의보감에 보면 ‘관절염은 대체로 혈이 열을 받아 더워졌을 때 서늘한 바람을 맞아 생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즉 습을 마시고 바람을 맞았거나 땀이 날 때 물에 들어갔을 때, 몸이 허약하 피부가 들쭉날쭉할 때 몸을 잘 보호하지 못하면 관절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절은 온도나 습도 등에 민감하므로 주변의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습도는 높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평소 관절이 약한 사람은 염증으로 고생하기 쉬우므로 하체를 적당히 따뜻하게 해야 한다. 일주일에 2-3회 반신욕을 하거나 잠자기 전에 족욕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 또한 손등의 가운데 손가락을 따라 내려가면 손목 부위에 양지라는 혈

이 나오는데, 이곳을 뜸들이 지압해주면 관절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이나 각종 비타민 등이 부족하기 쉬우므로 식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는 몸을 살찌우고 관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삼가도록 하며, 육류보다는 신선한 야채나 과일, 잡곡과 생선류로 식단을 꾸미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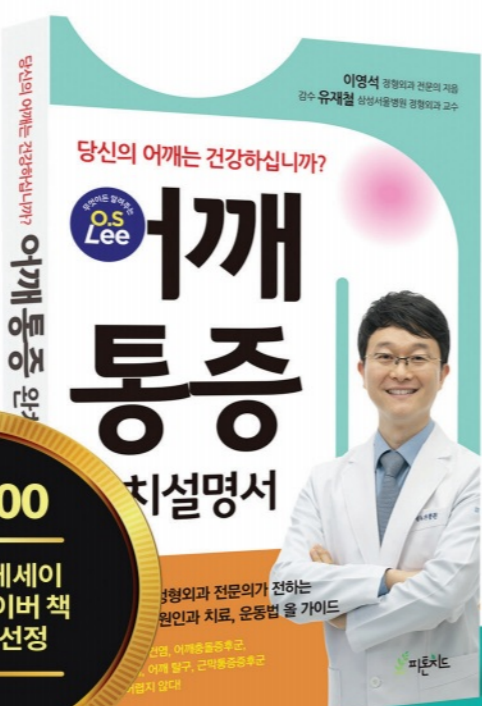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관절염은 40대 이상에서 발생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고도 비만 환자의 증가와 과도한 운동 등으로 20-30대에서도 관절염 환자가 늘고 있다. 따라서 젊다고 방심 말고 건강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은혜 한 장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TOP 100

YES 24 건강가게이 건강기타 / 네이버 책 베스트 도서 선정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신앙과가정 교회 문을 닫으며 낸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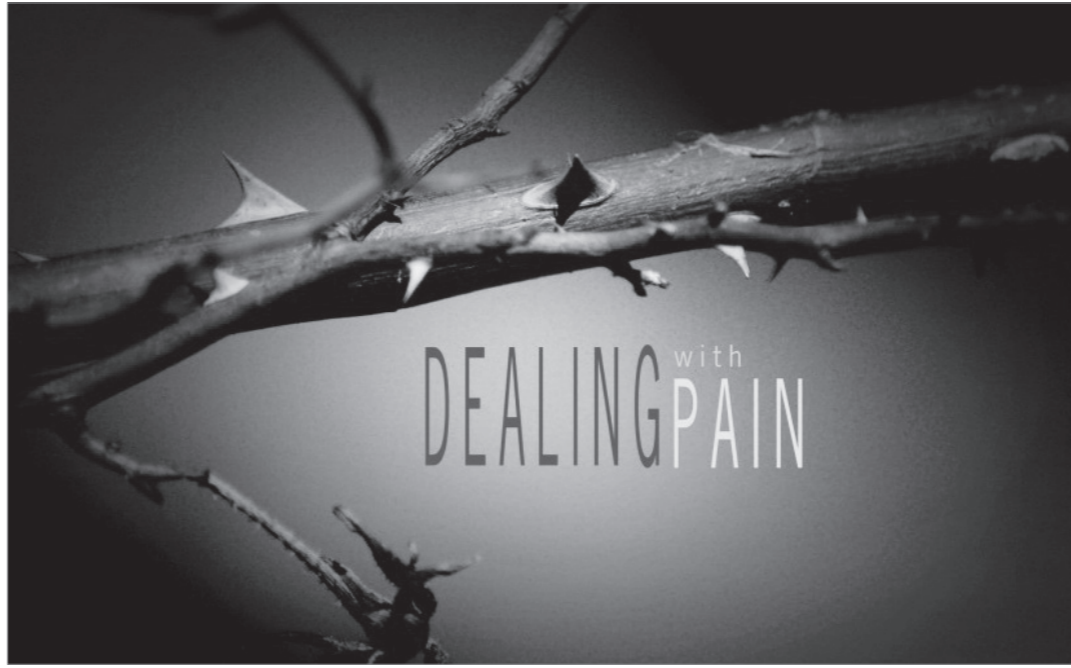
한국의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가나안 교인이 200만이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 청년이 떠나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위기와 불리한 시점에, 청년 마인드를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에 의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그야말로 청년을 위한 교회를 창립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는 몇몇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2016년에 의기 있게 창립되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목사가 하지 않고, 청년들이 했습니다. 늘 교회 사역에 소외당하거나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청년들은 자신들이 주체 혹은 주인공이 되어 의사결정을 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에 짜릿한 쾌감(?)을 느끼며 의기양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서 교회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동력이 떨어지며, 재정도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떠나는 바람에 교회를 접은 것입니다. 교회의 문을 닫으며, 이 목회자와 몇몇의 성도들은 교회 청산을 하며 '백서'를 발간하고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유는 좋

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출발은 했지만, 이것이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하였어도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위해 나아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이런 실패를 본받아 더 나은 청년 교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담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용기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대체로 실패하면 부끄러워서 소리소문 없이 문을 닫는데, 이 목회자는 자신들의 민낯과 실체를 그대로 공중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 백서에서 지적을 했듯이, 결국 원인은 하나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목적이 선하여도, 공동체에서는 말 잘하는 달변가들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견도 내고, 정체성을 세우기도 하고, 주인의식도 가졌지만, 아무도 자기 행동이나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예배시간을 지키지 않고, 재정적 헌신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할 것이라는 기대감속에서 자기



책임과 헌신을 잃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교회는 문을 닫게 된 것이지요. 남의 일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같은 현상

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 의견을 말합니다. 당위성, 정의, 성경적 본질 등에 대해서 거룩한 발언들을 쏟아 내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이루어 가도록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일이 되어가기까지 스스로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위의 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비판과 비평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교회는 말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생명력있게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없이, 죽을힘을 다해서,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 한 가지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글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교회는 일을 만들어내는 의사결정이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공동체여서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잊어서 안됩니다. 영혼구원의 회심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교회는 변질됩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이야기하늘나라

옛장수가 되어 전국을 떠돌아다녔다. 처음부터 옛장수가 된 것은 아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다.

"여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지 않아요. 그 애 잃은 지 40년이 되었어요. 지금 어떻게 찾겠어요?"

아내는 포기하라고 말했다.

"그래도, 죽는 날까지 찾을 거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좌판에는 아이를 찾는 간판을 걸어 놓고 전국을 떠돌았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면 다행이고 어느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을 때도 있다. 처음에는 리아카를 끌고 다니며 장사를 했지만, 중고 트럭을 구입하여 개조하였다. 차 속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

아이를 잃었을 때, 실직을 하였고 아내가 직장에 나갔다. 쌀쌀한 이른 봄 출근하는 아내를 보며 청얼대며 따라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전국의 보육원과 시립병원을 살살이 훑었다. 포기하지 않았다.

3년마다 미국 정부 산하 '실종-적취 어린이 센터'에 까지 의뢰해 아들의 예상 몽타주를 작성해 걸고 다니며 아이를 찾았다.

그런데 40년 만에 실종자 찾기 방송을 보고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이름이 누구예요?"

"이 환수입니다."

잃어버린 아이와 이름이 같았다. 나이도 같았다. 허리에 흉터가 있고 서대문구에서 잃어버렸다는 것까지 일치했다.

"여보, 이제야 찾았어요. 이제야?"

아내를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아내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아내는 아이를 잃었을 때부터 담담하여 이상하게 생각했다.

"환수야, 너 있는 곳이 어디냐? 아빠가 지금 당장 갈 것이다."

"아니예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소 알려주세요."

아들이 왔다. 네 살 때 잃은 아들이 이미 40대 장년이 되었다.

"네가 환수 맞냐?"

"네" 부둥켜안았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용서해 줘."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있었어요. 제가 오히려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지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네 살 때 저를 입양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몰랐는데 아버님이 운명하시면서 입양된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어요. 혹시 친부모를 만나거든 잘 모시고

실종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부유하게 살았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사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여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잘되었구나!"

"아버님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를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같이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아내도 교회에서 만났어요."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다. 아들은 성숙해 있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평생 아들을 찾기 위해 허둥대었던 세월이 어리석고 초라하게 보였다. 아들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왔다.

"너희들의 친 할아버지고 할머니시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내 마음과는 달리 그리 반갑게 느껴지지 않은 듯했다. 초라한 집, 초라한 노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조부모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 타이니 저와 함께 살아요."

옆에 있는 며느리의 눈치가 좋지 않았다.

"아니, 그럴 것 없다. 이제까지 떨어져 살았는데 자주 찾아오면 된다. 뭐 같이 살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러면 아버지, 제가 아파트를 마련할 테니 우리 집 가까이에서 살아요."

집을 이사하였다. 거실 중앙에 아들의 사진을 확대하여 걸어 놓았다. 두 장 밖에 없는 사진이다. 둘 때 찍은 사진과 세 살 때 찍은 사진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같이 다녀요."

"뭐, 이 나이에 교회를..."

"아버지 제 소원이어요. 아버지 어머니 같이 교회에 나가요. 그리고 매주 예배 끝나고 우리 집에 서 식사해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어색하였지만 아들의 권유로 교회에 나갔다. 이제까지 한 번도 받지 못한 대접을 받고 누리보지 못한 행복을 누리보았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4년에 흘렀다. 그런데 아들이 밤중에 찾아왔다.

"아버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내가 DNA 검사를 해 보자고 조른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무시했지만 이제 아내는 검사하지 않으면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넌 어머니를 빼어 닮지 않았느냐? 누가 보아도 어머니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을 만한데 며느리가 왜 DNA 검사를 하라고 해?"

"아버지 집에 걸어 놓은 저 어릴 때 사진 말입니다. 그 사진과 양부모님이 찍어 놓은 사진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양아버지를 너무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한번도 양부라고 의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는

DNA 검사와 상관없이 그냥 이대로 믿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 너의 부부가 우리를 인하여 불행해지면 안 되지. DNA 검사 어려운 것 아니잖아. 해 보자."

검사의뢰를 하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아내는 더욱 불안해하였다.

"여보, DNA 검사하면 친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일치하지 않을 리가 있겠나. 쓸데없는 걱정을 해."

결과는 친자가 아니었다.

아내의 DNA 검사를 했다. 아내의 친자였다. 세상이 노랗게 변했다. 아들을 잃었다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산 40년의 세월이 허무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의 멍살을 잡았다.

"누구 아들이야, 그래서 애절하게 찾지 않았어. 같이 죽자. 어떻게 속일 수 있어. 당신, 인간이야 짐승이야..."

"여보, 잘못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제가 환수를 친 아버지에게 보낸..."

아들이 들어 왔다.

"아버지, 전 아버지 아들이어요. 제가 알아보니 DNA 검사가 잘못되었어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할 수 있고 한 가족이에요."

열린교회/김필곤 목사/콩트집 하늘 바구니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드럼에 있어서의 페달 테크닉

드럼 연주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드럼 연주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을 물어보면 대부분 손보다는 발 연주, 즉 페달을 밟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김현중 교수

을 할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조언은 항상 그렇듯 의미 없이 공허하게 다가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몇 가지 작은 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 드럼 페달을 연습할 때 왼발은 하이 햇(hi-hat)으로 생각하고 밟으며 연습하고 오른 발은 킥(kick) 드럼으로 생각하고 밟으며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렇게 연습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신발을 신고 신발로 바닥에 소리를 내어 손 연주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발로 소리를 내어 그 소리가 스틱으로 페달을 연주하는 소리와 리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실제로 드럼 세트에서 연주했을 때에 발 연주가 편안하게 연주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쉬운 테크닉이 아닌 이유는 발로 소리를 내어 연주하지 않더라도 드럼 세트에서 페달을 밟으며 조화로운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발

을 움직이며 연습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머들은 굳이 그렇게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 연주 연습을 하면 페달에서 몰라보게 정확하고 편안한 연주가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페달의 텐션을 자신의 생각보다 조금 더 약하게 세팅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드럼 페달의 텐션에 관한 학생들의 질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에게 맞는 텐션은 어떤 것일까? 세계 세팅을 해 놓아야 내 발목의 근육이 강화되어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는 것이 아닐까? 혹은 약하게 세팅해 놓으면 빨리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등등 많은 의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경험해 본 바로는 페달의 텐션을 강하게 해 놓았다고 발목 근육이 강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강화하고 싶으면

다른 운동을 통하여 훈련해야지 드럼 페달로 강화연습을 하는 것은 올바른 연습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할 때 핸들을 돌리는 힘이 약하다고 핸들을 더욱 돌리기 힘들게 만들어 팔 근육을 강화시키자는 이론과 마찬가지로 생각 합니다. 이것은 때면 연주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으며 실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 더욱 올바른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페달 텐션이 강하면 강할수록 빠른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사실 페달의 속도에 가대어 연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발목이 연주할 수 없는 템포에서도 페달이 강하게 다시 돌아와 또다시 밟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스피디한 하드코어 메탈 곡에서 트윈베이스 페달을 밟을 때 텐션을 강하게 해 놓으면 조금 쉽게 빠른 연주가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팅해 놓고 오랜 기간

연습하면 자신의 발목 근육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페달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잉 에너지로 연주하게 됩니다. 즉 페달을 밟아서 킥 드럼을 타격하는 적절한 힘보다 더 강하게 밟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강한 연주는 잘 할 수 있으나 부드럽고 섬세한 연주는 못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페달 텐션을 자신의 생각보다 오히려 조금 약하게 해놓으면 그 상황에서 페달 스피드가 약한 것을 극복해 내며 발목 근육이 빠르게 작

용하도록 훈련되기 때문에 발목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운스가 좋은 드럼 패드에서의 연습보다 베게나 쿠션 등에 루디먼트(rudiment)를 연주하게 되면 정확도와 힘, 스피드가 동시에 얻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입니다. 바운스에 의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운스를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세팅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더욱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훈련이 될 것입니다.

◆ 김현중 교수

서강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usicians Institute에서 드럼과 레코딩을 전공하였다. 상명대에서 컴퓨터음악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철학박사과정 수료하였다. 귀국 후 96년 서울재즈아카데미를 처음 만드는데 일조하였으며, 영화 정사, 약속, 미술관 옆 동물원 등의 OST 드럼을 연주하였다. 퓨전밴드 RTZ, 이정선, 한상원&정원영, 이현우 등의 공연 세션을 하였고,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에서 드럼 연주를 하고 있다. 현재 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Rock Drums(2003,예술)가 있다.

여행하듯



누가복음 10장 29-37절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율법교사인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당시의 시대 상황에 빚대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과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모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를 향하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 산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3,000ft (860~912m)에 위치했고 여기고는 해수면보다 약 1,000ft(304~320m)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높낮이의 차이는 거의 약 1,200m 이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던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골짜기를 붉은 피가 흐르는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에 비친 골짜기의 바위와 땅이 붉은빛을 띠기도 했고, 실제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

고 있는 물건들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리고라는 도시는, 엘리사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선지자 양성학교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그 도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집성촌이 형성되면서 생겨났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며 맡은 업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청빈과 경건의 삶을 살기보다는 성전에 드러진 예물 가운데 많은 것을 착복하여 자신의 거처가 있는 여리고로 가져갈 때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강도들이 그 골짜기로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갔을까요? 성결 규정이 있는 레위기 21장 1-11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규정을 범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 성경으로 읽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3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라고 ‘내려가다가’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내려가다가’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서둘러 길을 떠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급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역시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내려가다가’를 받는 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서둘러 그 길을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까요? 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왜 거의 죽을 때 까지 맞았을까요? 아마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도 역시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렸던 이유는 그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무엇인가 손에 많이 들고 가던 중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이 빨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분열 이후 오므리 왕조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진 곳이었고 우상 숭배로 하남에게 범죄 한 도시였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몰락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앗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고, 사마리아에 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

들은 메소포타미아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앗수르 왕조가 무너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은 ‘혼합종교에 물든, 혼합혈통을 가진 저급한 인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쪼록 쓸모없는 인간들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길을 사마리아인이 가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봉변을 당했을까요? 어떤 유대인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의 목적지는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에 도착하게 되면 그는 또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33절). 헬라어로 ‘여행하는 중’이라는 단어는 ‘내려가다가’와 같은 행위를 뜻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며 어슬렁거리며 내려가다

가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역시 손에 든 것이 많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탈 짐승도 있었고, 여비도 있었고, 기름과 포도주도 있었습니다(34-35절). 그런데 왜 그는 무시무시한 붉은 피가 흐르는 골짜기를 여행하듯 어슬렁거렸을까요?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두 그룹을 극명하게 비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시간도 있고 돈도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려면 뭔가 좀 넉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목적과 의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듯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천천히 그리고 찬찬히, 사색하듯 여행하듯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향해 진격하듯 살아가나? 물론 그것이 정말 급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처럼 살아야겠습니다. 욕심껏 사는 인생이기보다는 여행하듯 살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뜰히 보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것은 “너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이웃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있지? 그런데 너는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좋은 이웃일까?” 이 물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마리아 것처럼 여행하듯 살아야겠습니다. 욕심과 욕구로 가득한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산책하듯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행하듯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가득하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이상익 목사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이자 평생교육원장, 장신리더십아카데미 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금융

1학년이 된 아들에게

늦은 나이에 너를 만났지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빠 너를 통해 배웠어

그런 너를 바쁜 엄마 아빠 때문에
아침 일찍 보내고 해질 무렵에 하고 시키는 요즘
아빠는 마음이 참 무거운데

“아빠 얼른 가! 학교 진짜 재밌어~”

씩씩하게 웃는 네 모습을 보면
먹고사는 게 뭐라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날들이 다 추억이 되겠지?

그 시간이 언제나 아빠는 언제나 널 위해
여기 있을 거다, 등굣길에 잡았던 손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네 곁에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늘 봄 같은 우리 아들**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이 함께 만드는 '돌봄 공백 없는 세상'

KB금융그룹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총 1,250억 원을 지원하여 2,256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하였고, 2027년까지 25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